

大谷里 岩刻畫에 나타난 新石器時代 韓半島의 食生活文化⁺

고 경희

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전공

Food Culture of Korean Peninsula in the Neolithic Period Described in Daegok-ri Petroglyph

Kyung-Hee Koh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 of regional food culture observed in prehistoric *Daegok-ri* petroglyph based on the history of art, archeological materials and existing whale eating customs. *Daegok-ri* petroglyph expressed animals in the sky, on the land and in the sea. According to the relic, the most preferred land and marin animals were deer and whale, respectively. In terms of petrographic techniques, earlier patch engraving was used mainly to express marin animal whale, and later line engraving to express land animal deer. This implies the possibility that as whale hunting declined due to regional environmental change the source of protein was switched to land animals. Among relics found in *Dongsam-dong* shell mound, which is a remain from the Neolithic Period, whale bones appear only in shell mounds of the Neolithic Period in coastal areas, and in shell mounds until the Iron Age, which were the Agricultural Age, were found the bones of land animals such as deer and wild boar. This shows that in the petroglyph thematic land animals expressed in line engraving, which is a technique later than patch engraving, were major food resources for the supply of protein. Moreover, in terms of art, *Daegok-ri* petroglyph describes "advanced hunters," suggesting that it was the Neolithic Period and showing an aspect of regional food culture based on hunting and fishing. The credibility, which prehistoric men expressed in *Daegok-ri* petroglyph before the invention of letters, was also proved by archeological articles.

Key Words : food culture, Korean peninsula, Neolithic period, whale, *Daegok-ri* petroglyph

I. 서 론

선사시대의 구석기(250만년전~1만년전)와 신석기(약 1만년전~3천년전)인들이 비록 문자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나 시간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그들도 자연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하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식품을 섭취하였고 자신들의 역사를 개척하였다. 선사시대의 대표적인 회화적 표현체인 암각화(岩刻畫)는 바위의 표면을 조아내어 면새김한 면각화(面刻畫)와 선을 그어서 선새김한 선각화(線刻畫)로 나누고, 채색의 유무에 따라 암각화와 암채화(岩彩畫)로 나눈다. 우리나라에서는 암각화란 말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암채화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암채화는 채색 암각화로 유럽의 알타미라 동굴벽화·리스코동굴벽화가 있고, 가까이는 중국이나 시베리아 각지에 분포하는 암벽 위의 물감으로 그린 그림들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암각화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전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발견되며 선사시대의 생활상을 알려

주는 기록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남궁일 2001).

한반도에서도 세계적인 선사시대 암각화가 1970년 12월 25일과 1971년 12월 25일의 두 차례에 걸쳐서 동국대학교 박물관의 문명대 교수 일행에 의해 발견된 경북 울산 언양면 대곡리 암각화(국보 제285호)와 천전리 암각화(국보 제147호)가 발견되었고 국내 학계에는 암각화라는 연구 분야를 새롭게 설정하게 한 대표적인 선사시대 유적이다(이상목 2004). 특히 대곡리 암각화는 사냥예술(hunting art)로 부르고 있으며, 북구 스칸디나비아에서 시베리아 등지의 신석기 시대 사냥예술과도 직결된다. 또 중국 쪽에서는 봉고에서 흑룡강 유역에도 암각화가 있어 같은 북방문화권인 우리나라의 대곡리 암각화는 움직이는 운동감과 생명감이 충실히 묘사된 암각화이다(이상목 2004). 대곡리 암각화의 연대문제는 고고학(김원룡 1983; 정동찬 1996; 이상목 2004), 미술사학(Moon 2000; Kim 2000), 역사학(김원룡 1980; 장명수 1997; 김정배 1998), 민속학(임장혁 1991; 한국역사민속학회 1996), 종교와 신화학(Jang

+The research was supported by 2005 grants from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 Kyung-Hee Koh,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Wonmi-gu, Pucheon City, Kyonggi-do 420-743, Korea, Tel : 82-2-2164-4313 Fax : 82-2-2164-4111 E-mail : verokoh@catholic.ac.kr

2000; Chun 2000; Jo 2000)와 수산 및 지리학(Kim 2005; Hwang & Yoon 2005)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신석기 중기에서 청동기 초기를 편년대로 보고 있다(Moon 2000). 이 편년대는 식생활문화적으로 보면 신석기시대의 수렵어로(狩獵漁撈) 경제중심시대에서 청동기시대는 농경민의 식생활로 변천하는 시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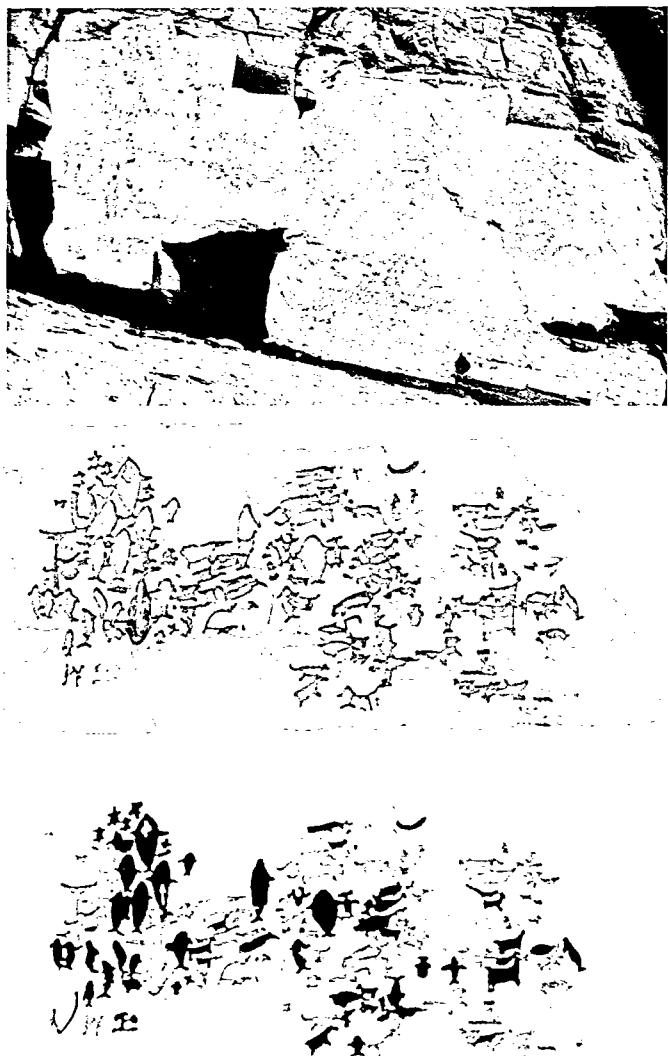
본 논문에서는 선사시대의 대곡리 암각화에 나타난 수렵어로 중심의 식문화를 주변지역 신석기시대 패총 유물들을 통하여 지역적 고래식용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대곡리 암각화에 표현된 선사시대 기록의 진실성을 식문화적인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II. 본 론

1. 미술사적관점에서의 대곡리 암각화에 나타난 식생활 문화

대곡리 암각화는 크게 좌우 두 부분으로 갈라지는데 그림이 겹친 부분의 순서로 보아 좌측에서 시작해 우측으로 옮겨가며 새겨졌고, 〈Figure 1〉에서와 같이 가장 특징적인 것은 왼쪽의 고래중심의 바다동물류와 오른쪽의 사슴중심의 육지동물류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가운데 부분에 고래와 바다거북 등의 바다동물류와 육지동물류가 중첩된다. 유난히 많이 새겨진 동물은 고래이며, 우리나라 동해안으로 회유(回遊)하는 고래는 10여종으로 조사되었다. 그런 고래가 바위그림에서도 거의 다 확인할 수 있으며, 고래의 종류뿐만 아니라 생태적 특성도 정확히 표현되었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Chun 2000). 대곡리 암각화의 표현기법으로는 〈Figure 1〉와 같이 선새김과 면새김의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었으며 이는 시대적인 전후를 구분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중국·몽골·시베리아 지역의 암각화에서는 선새김과 면새김의 시대적 구분이 뚜렷하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분명하여 대체로 면새김이 선새김 암각화 보다 시기상으로 앞선다고 하였다. 일반적 대곡리 암각화의 편년대를 신석기중기에서 청동기초기로 보는 추세에서 보면, 같은 주제라도 선새김의 표현이 더 늦은 시기에 즉 청동기초기에 기록된 그림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는듯하다(Moon 2000).

대곡리 암각화에는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이 191개가 새겨져 있다. 〈Table 1〉에서와 같이 육지동물은 사슴, 호랑이, 맷돼지 등 88개(53.7%)인데, 그 중 사슴이 41개로 절대다수이고, 호랑이 14개, 맷돼지 10개의 순이다. 바다동물은 고래, 물개, 거북 등 75개(45.7%)인데, 그중 고래가 48개로 절대다수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새 1개, 사람 8개, 배, 그물, 목책 등 수렵과 어로에 쓰이는 도구가 10개, 기타 불분명한 그림이 9개가 있다. 대곡리 암각화에 바다짐승으로 왜 고래의 표현이 주류를 이루는가에 대하여 지형적인 연구를 하였다. 대곡리 암각화의 고래잡이는 Holocene 해진



〈Figure 1〉 Field rubbing photography of Daegok-ri rock art.

Animal types(■ marin animals □ land animals) and engraving styles(■ patch engraving □ line engraving).

Source: Jangsangpo Whale Museum, Ulsan Metropolitan Namgu (2005)

극상기 고울산만(古蔚山灣)과 태화강 하류부의 고굴화만(古窟火灣)의 독특한 지형환경에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며, 그 방법은 고울산만에 들어온 고래를 여러 척의 소형선박을 이용하여 고굴화만 쪽으로 몰아서 좌초시켜서 잡는 물이어법에 의한 포경이 일반적이었을 것이며, 또는 고래들이 먹이를 쫓거나 육식성 고래 등에 쫓겨 좁고 긴 내만으로 스스로 들어오는 고래를 포획하여 생활하였다고 하였다(Hwang 2005).

Anati(2000)는 전 세계적으로 암각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정형태와 내용의 보편적 특징을 통하여 4% 정도의 암각화를 제외하고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암각화가 “초기수렵인”, “발달된 수렵인”, “목축인”, “복합경제인”의 4가지 분류체계에 속한다고 하였다. “초기수렵인”的 경

<Table 1> Animals distribution in Daegok-ri rock art

Class	Order · Family	Remark	Number	
			Order · Family	Class quantity
Land animals	Deer Family	Include Must deer Family	41	
	Tiger Family	Include Cat Family leopard · tiger · fowl	14	
	Wild boar Family	Include Pig Families	10	
	Cattle(?)		3	88
	Rabbit		1	
	Weasel	Include Dog Family	2	
Marin animals and fish	Others		17	
	Whales	Whale	48	
	Seal	Include Sea lion · Seal	5	
	Marin turtle		6	75
Men	Fish		14	
	Others		2	
	Hunting, Sorcerer and hunter		6	
Hunting and fishing	Mask · Face		2	8
	Whale, fishing, ship		4	
	Net		2	10
Birds	Fence		4	
	Bird		1	1
Others			9	9
Total				191

Source: Kim GS. 2000. The fishing practice appearing in Ulsan rock art. 「International Symposium on Ulsan Rock Art」Seoul Arts Center and City of Ulsan. Seoul Arts Center. Seoul

우 활과 화살을 사용하지 않았던 수렵인들의 미술은 형상과 기호가 연관되어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서술적인 장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발달된 수렵인”은 활과 화살을 사용했던 수렵인들의 미술은 서술적이고 일화적인 장면들을 남기고 있다. “목축인”은 유목인들의 기르던 동물들이 주된 소재이다. “복합경제인”的 경우 농경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를 영위했던 사람들의 미술은 신화적 장면과 반복적이고 도식적인 기호들이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분류와 특징을 통하여 대곡리 암각화에서 보면 왼쪽 중간에 면새김한 고래등에 꽂힌 화살,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고래를 끄는 장면, 누군가 부르는 사람의 모습 등 서술적인 장면이 표현되어 있고, 암각화표현에서도 중간크기나 아주 축소된 크기의 동물묘사와 의인화된 형상의 비율이 많아진다는 관점에서 두 번째 카테고리에 속하는 “발달된 수렵인”이 그런 암각화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암각화의 미술사적 특징으로도 대곡리 암각화는 신석기시대의 문화를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탄자니아의 암각화 경우, 수천년에 걸쳐 만들어졌는데 주로 땅, 과일, 나무 그리고 다른 초목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많이 새겨져 있었으며 이는 흥적세말기와 완신세초기로 추정되는 한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이미지로, 자료에 의하면 이 시기는 채집경제 시기이고 사람들은 채집을 통한 채식위주의 생활을 하였다고 하였다. Anati (1986)는 탄자니아의 암각화는 “초기수렵인”的 시기에 열매와 식물을 채집해서 살아갔던 구석기시대의 초식인들의 삶의 단면을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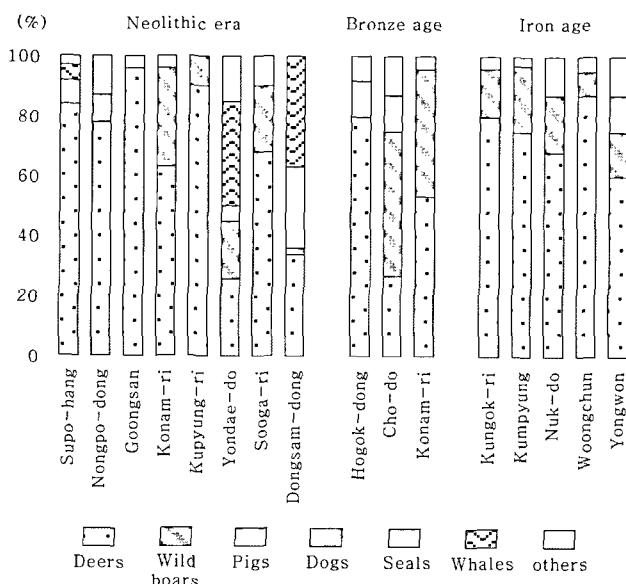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예는 매우 드문 경우이나 암각화의 표현양식을 통한 암각화 편년대 추정과 선사시대의 식생활문화 관련 내용의 자료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암각화도 점점 지역적 특성이 지배하게 되고 주변 환경에 의해 조건 지어지게 되며 공통요소도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보면, 대곡리 암각화에 나타난 기호적인 지역적 식생활문화의 특성은 공동으로 배를 이용하여 수렵어로의 공동체적인 삶이 그려져 있으며 채식위주보다는 수렵어로위주의 남성적인 식생활문화를 암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암각화의 공통주제인 성, 음식, 그리고 영토의 세 가지의 주제가 대표인 것이 대곡리 암각화에서도 예외는 아니며 특히 하늘, 땅, 바다 영토에 존재하는 동물들을 표현하였다. 바다동물인 고래는 48개, 육지동물인 사슴은 41개로 각각의 영역에서 첫 번째 압도적 절대다수 동물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사슴은 순하고 쓰임새 많은 짐승으로 선사시대 사람들과 아주 친숙하고 중요한 사냥감이어서 선사유적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는 짐승이다. 특히 사슴은 구석기시대 후기 아래로 시베리아 초원지대 주민들의 주된 식량원인데서 생겨나는 사슴에 대한 경의와 숭앙의 표현일 것이다. 이 전통은 암각화에도 나타나고, 삼국시대에는 사슴뿔이 왕권의 의미를 지닌 신라왕관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다(임세권 1999). 그러나 고래의 표현은 대곡리 암각화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동물이다. 암각화 기법으로 보면 시대를 앞선 면새김의 표현에는 고래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선새김은 육지짐승의 수가 많은 것은 식생활 문화면에서 신석기후기로 갈수록 이 지역에서의 자연 환경 조건의 변화로 바다동물에서 육지동물 위주의 단백질식품으로 생명을 유지하였음을 시사하는듯하다.

2. 고고학적관점에서의 대곡리 암각화에 나타난 식생활 문화

고고학적 유물 가운데 식생활문화와 가장 밀접한 역사 자료는 패총(貝塚)이다. 그 당시 쓰다버린 골각기, 석기, 토기등과 함께 조개껍질, 물고기, 새, 짐승 등의 뼈들은 그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동시에 그 당시 사람들의 식생활 문화를 말해주는 귀한 자료들이다.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육서 및 해서류 포유류의 동물유체가 정량분석을 통하여 제대로 파악된 것은 <Figure 2>와 같다. 신석기시대 동물유체는 동북지방의 서포항패총, 농포동패총을 들 수 있는데 각각 21종, 15종으로 나뉘고 이것들을 종별로는 사슴류가 85% 이상을 차지하여 수렵의 주된 대상물은 사슴류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서북지방은 궁산패총으로 사슴류가 96.1%를 차지하여 사슴류 중심의 수렵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서해안 중부지방에 내려오면 고남리 패총에서처럼 사슴류 62.5%, 멧돼지 33.3%로 사슴류와 멧돼지에 집중된다. 남해안지방은 구평리패총, 연대도패총, 수가리패총, 동삼동패총 등 도서부와 육지에 형성된 패총들의 동물유체가 분석되어 비교적 그 성격을 파악하기 용이하다. 이들 패총에서 출토된 자연유물도 서해안 중부지방과 동일하게 사슴류 중심에 멧돼지가 부가된 형태이다. 해서포유류는 바다에서 서식하면서 새끼를 낳아 젖으로 양육



<Figure 2> Frequency distribution of animal materials in shell mounds

Source: Kim GS. 2000. The fishing practice appearing in Ulsan rock art. 「International Symposium on Ulsan Rock Art」 Seoul Arts Center and City of Ulsan. Seoul Arts Center. Seoul

하는 동물들을 총칭하는 말로 고래류와 강치류가 이에 속 한다.

<Figure 2>와 같이 신석기시대에 동북지역의 함북 서포항과 남해안 지역의 연대도와 동삼동패총 지역에서만 <Figure 3>과 같은 고래류와 강치뼈가 발굴되었으며, 서해안 지역의 패총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시대에 동해안 지역이 고래의 회유(回遊) 지역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대곡리 암각화가 있는 태화강 하류에서 고래와 관련된 직접적 유물이 출토된 적이 없으나, 이 지역도 고래회유지역으로 주변의 동삼동지역 패총유물을 통하여 간접적인 관련성을 시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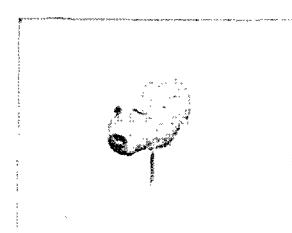
특히 동삼동 패총에서는 고래류와 강치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60%로 육서 포유류보다 포획량이 많아 동삼동인들의 바다활동을 짐작할 수 있다(Kim 2000).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래를 실지로 잡은 것은 조선말기 부터 시작하였으나 고래를 이용한 것은 석기시대부터 시작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정석조 1982; 정석조 1983). 그리고 부산 동삼동 패총 조개무지에서 <Figure 4>와 같이



<Figure 3> Whale bones. Neolithic Dongsam-dong, Busan
Source: Bokcheon Museum 「Ancient Cooking, 2005」



<Figure 4> Deer jawbone(left) and roe deer bone(right)
Neolithic Dongsam-dong, Busan
Source: Busan Museum 「Dongsam-dong shell mound pavilion illustrated book,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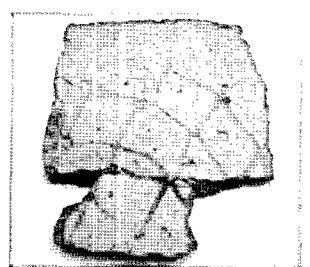


<Figure 5> Wild boar
Neolithic Tongyeon, Gyeongsangnam-do
Collection: National Museum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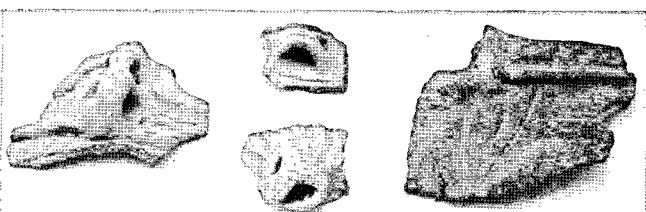
<Figure 6> Composite fishing hooks. Neolithic Bumbang shell mound

Source: Busan Museum 「History and Culture of Busan, 2002」



<Figure 7> Potsherd with imprinting net. Neolithic Dongsam-dong, Busan

Collection: National Museum of Korea



<Figure 8> Jomon potteries. Neolithic Dongsam-dong, Busan

Collection: National Museum of Korea

육지짐승인 사슴의 턱뼈와 노루의 뼈가 바다짐승의 유물과 동시에 발견되었다(강인희 1995).

〈Figure 2〉에서 같이 청동기와 철기시대의 패총에서는 고래류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Kim (2000)는 청동기시대에는 신석기시대 수렵, 채집, 어로의 획득경제에서 벼농사가 도입되어 재배경제로 전환되어 일정한 거주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동안 물을 필요로 하므로 자연스럽게 내수면 어업으로 전환되면서 패총의 수가 급감되고 고래잡이와 같은 외양성어업의 특징이 사라지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Hwang(2005)은 그 당시 대곡리 암각화에 바다짐승으로 왜 고래의 표현이 주류를 이루는가에 대하여 지형적인 연구를 하였다. 대곡리 암각화의 고래잡이는 Holocene 해진극상기 고울산만(古蔚山灣)과 태화강 하류부의 고굴화(古窟火灣)의 독특한 지형환경에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며, 그 방법은 고울산만에 들어온 고래를 여러 척의 소형선박을 이용하여 고굴화만 쪽으로 몰아서 좌초시켜서 잡는 몰이어법에 의한 포경이 일반적이었을 것이며, 또는 고래들

이 먹이를 쫓거나 육식성 고래 등에 쫓겨 좁고 긴 내만으로 스스로 들어오는 고래를 포획하여 생활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후빙기 해진극상기 이후 해면이 안정되면서 태화강이 퇴적물에 의해 하구부가 매직되면서 고래의 사냥 및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단백질원은 육지동물을 통하여 공급하였을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이태진(2006)은 이런 자연적인 지형적 변화는 신석기 중기와 후기에 한반도에 나타난 외계충격설에 의한 기후변화로 청동기시대 태화강 일대 지역에 더 이상 고래가 서식하지 않고 육지동물이 서식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가 아닌가라고 설명하고 있다.

육지짐승인 사슴류와 멧돼지는 신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에 걸쳐 거의 모든 패총에서 발견되는 동물이다. 동삼동 패총에서 〈Figure 5〉와 같은 돼지의 조상 격인 멧돼지 토우가 많이 출토되었고, 대곡리 암각화에서도 표현된 것으로 보아 가축으로 길들여지기 이전에 야생의 멧돼지가 한반도 전역에 자생하고 있었으며 식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강인희 1995).

이상과 같이 고고학적으로 대곡리 암각화에 나타난 식생활문화를 보면 신석기시대유적인 부산 동삼동 패총에서 발견된 유물은 대부분 암각화에 표현된 고래, 강치, 사슴, 노루 뼈들이 나왔으며, 〈Figure 6〉의 결합식 낚시바늘과 작살, 그리고 〈Figure 7〉의 표면에 그물조각이 찍힌 토기 및 어망 등의 어구(漁具)도 발견되어 대곡리 암각화에 나타난 고기잡이 도구문화를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Busan museum 2002). 그리고 〈Figure 8〉은 동삼동 패총에서 발견된 일본의 죠몽토기(繩文土器)파편으로 이 지역의 한반도인은 신석기시대에 일본 북 큐슈와 국제적인 교류문화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같이 대곡리 암각화에서 바다짐승의 주요 주제로 나타났던 고래는 해안지역 패총에서는 신석기시대에만 나타나고 농경시대인 청동기와 철기시대에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육지짐승인 사슴과 멧돼지 뼈 등은 지속적으로 발굴되었다. 이는 〈Figure 1〉의 암각화에서도 보았듯이 면각보다 늦은 시대의 기법인 선각으로 표현된 육지동물이며, 수렵어로시대인 신석기시대 이후인 청동기시대의 농경시대에 중요한 단백질 식품자원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대곡리 암각화에 선사인들이 문자대신에 표현한 조형물 자료의 진실성을 고고학적인 유물인 패총을 통하여 고래식용문화를 증명할 수 있었다.

3. 현존하는 고래식용문화와 대곡리 암각화에 나타난 식생활문화

식생활문화사적 측면에서 신석기시대의 문화는 기본적으로는 농경문화와 관계가 없으며, 어로수렵 중심의 식생활문화로 이루어졌다. 이는 시베리아에서 내려오는 수렵이나 어업문화와 관련이 있음을 추측하고 있다 (Komatsu & Misaki 2004). 신석기시대 한반도 선사인들은 수렵어로

<Table 2> Whaling Nations and Whale Species Utilized

Nation	Area / Ethnicity	Purpose
Russia (A/S)	Chukotka, Chukchi	skin, meat for food
Canada (non-IWC)	Inuit	skin, meat for food, dolphins for sleigh dog food
U.S.A. (A/S)	Alaska Inupiat WA Makah	skin, meat for food skin, meat for food
Denmark (A/S)	Faeroes Is. Greenland	skin, meat for food & dog food skin, meat for food & dog food
St. Vincent & the Grenadines	Bequia Is. St.Vincent Is.	meat for food, oil for food & medicine meat for food, oil for food & medicine
Iceland		skin, meat for food
Norway (commercial)		meat for food
Korea	Ulsan & around Pusan	for food(all whale species are protected by domestic law since 1986)
Japan		for food
Taiwan (non-IWC member)		for food
Indonesia (non-IWC member)	Lamarera, Lambata Sola Is.	for food for food
Philippines	Negros Is., Mindanao Is., Serinog Is. etc.	whales for food, dolphins for food & baits, teeth for artifact (Liver is traded at high prices.)
St. Vincent & the Grenadines	Bequia Is.	protein for the poor, oil for medicine
Dominica		meat & oil for food, teeth for tourist item
Dominican Rep. (non-IWC member)		for food
Tonga (non-IWC member)		for food
Solomon Is.	Maraita Is. Rennel Is, etc.	for food & teeth for currency

A/S: Account Sales, IWC: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Source: 「The History and Science of Whales」 by Masayuki Komatsu and Shigeko Misaki. The Japan Times. 2004

<Table 3> Comparison of nutrient value between whale meat and other animal meats(100g)

	Lipid(g)	Energy (kcal)	Cholesterol(mg)	Vitamin A(µg)	Vitamin B ₁ (mg)	Protein(g)	Iron(mg)
Whale meat	0.4	106	38	7	0.06	24.1	2.5
Beef	25.8	317	72	2	0.07	17.1	2.0
Pork	5.6	150	61	4	0.80	22.7	0.7
Chicken	4.8	138	77	17	0.10	22.0	2.1

Source: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of Japan. Standard component values of food in Japan" 5th Edition by Resoueces Surveillance Commission. 「The History and Science of Whales」 by Masayuki Komatsu and Shigeko Misaki. The Japan Times. 2004

식생활문화와 부수적으로 산야에서 자생하는 식물성 열매류를 채취하였으며, 부산 동삼동 유적에서 빗살무늬토기들과 함께 잡곡류 등과 도토리와 밤 등이 발견되고 있어 선사인들의 식품으로 사용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Bokcheon Museum 2005). 근채류로는 마, 침뿌리 등의 구근류와 함께 고사리 등의 산채류(山菜類)등의 식용은 빗살무늬 토기시대의 유물로 식물채취기구가 발견됨에서 알 수 있다고 하였다(강인희 1995).

현존하는 고래식용문화지역은 <Table 2>와 같다. 유럽에서의 고래이용은 대부분 기름을 위한 것이며, 그중에 노르웨이와 아이스랜드에서는 고래고기를 식용으로 하고 있다. 알래스카와 북부 카나다에서 그린랜드에 거주하는 이누이족들은 염분이 있는 고래기름을 "muktuk"이라고 부르고, 고래고기를 건조하여 먹고 식품으로서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고유의 식생활문화를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의 Lamarera와 Lambata에서 고래고기는 중요한 영양원이다. 고래고기와 껌질을 염장하여 말려서 일년 내내 먹으며, 말린 고기로 삶아 만든 육수는 쌀과 육수수에 부어서 조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선한 고래고기는 기름에 튀겨서 양념과 함께 먹는다. 카리브해의 Bequia섬과 St. Vincent섬에서는 고래고기를 삶아서 먹고 껌질은 튀겨서 먹는다.

이와같이 고래식용에 관한 식생활문화는 라틴아메리카와 남부아프리카에도 있다. 유럽으로의 고래식용문화를 거슬러 올라가면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귀족계급에서 식용하였으며, 프랑스와 스페인 지역 사이에 있는 바스크지역의 바스크인들은 중세초기부터 고래를 잡으려 나갔던 용감한 민족으로 가장 오래된 고래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일본의 고래식용은 죠몽시대(약 기원전 3500년)부터 시작하였으며 해안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단백질 급원식품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울산과 부산지역 일부지역의 식생활문화이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고래고기를 생것으로 먹으며, 껌질과 힘줄은 소금을 넣어 끓는 물에 익혀서 먹는다(Komatsu & Misaki 2004). 대곡리 암각화는 한반도가 일본보다 앞선 신석기시대부터 고래를 식용하였다는 근거를 나타내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Table 2>에서 고래고기 100g당 단백질의 함량이 24.1g으로 소고기 보다 우수하며,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함량은 각각 0.4g과 38mg으로 적고, 철분은 2.5mg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야생 멧돼지의 속하는 돼지고기 성분을 보면 단백질의 함량이 22.7g이고 비타민 B₁이 0.80mg으로 높으며, 고래고기의 지방함량은 5.6g으로 소고기와 닭고기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Komatsu & Misaki 2004).

III. 결 론

대곡리 암각화는 세계포경업사의 첫장을 시작하는 문자 이전의 상형문자 형식으로 표기된 고래잡이와 관련된 공동체적인 삶이 그려져 있다. 세계적으로 암각화의 공통주제인 성, 음식, 그리고 영토의 세 가지의 주제가 대표인 것을 대곡리 암각화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본고에서는 미술사적인 차원에서 대곡리 암각화는 “발달된 수렵인”이 그린 신석기시대 문화이며 암각화 기법으로 보면 면새김의 표현에는 바다짐승인 고래를 주류로 표현하였고, 선새김은 투시법을 사용하여 육지짐승인 사슴을 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신석기 시대로 추정할 수 있다.

식생활문화적 차원에서 채식위주 보다는 동물성 위주의 수렵어로의 남성적 식생활문화의 일면을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바다동물은 고래, 육지동물은 사슴을 가장 선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신석기 후기로 갈수록 선새김으로 표현된 육지동물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아 지역적인 환경변화로 태화강 주변의 고래 채취가 줄어들면서 단백질원으로 육지동물을 통하여 공급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고고학적으로도 신석기시대 유적인 동삼동 패총에서 발견된 유물들, 특히 고래는 해안지역 패총에서 신석기시대에만 나타나고, 농경시대였던 청동기와 철기시대에는 육지짐승인 사슴과 멧돼지 뼈 등이 발굴되었다. 이는 암각화에서도 면각보다 늦은 시대의 기법인 선각으로 표현된 육지동물을 중요한 단백질 식품자원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대곡리 암각화 자체만으로 식생활문화사 차원에서 고래식용에 관한 역사적인 근거자료로 증명하기는 한계성이 있으나, 역사라는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본다면 현존하는 울산과 부산지역의 고래식용문화, 그리고 수렵어로 중심이었던 신석기시대 동삼동 패총에서 발견된 고래관련 유물들을 통하여 대곡리 암각화에 표현된 기록의 진실

성을 부분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 대곡리 암각화에 나타난 고래표현의 높은 회화성, 고래생태의 정확한 표현은 한반도 선사인의 최고의 예술성과 과학성을 나타낸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며 고대 한반도 문화와 한민족의 형성 측면에서도 검토해볼 과제이다.

그 외에도 대곡리 암각화는 성스러운 풍요와 재생을 빌던 신화, 전설, 종교, 역사, 신앙, 교육 등의 사유세계를 생생하게 표현한 종합언어의 성격을 갖는 선사시대 유물로 많은 의문과 상상력을 시사해 주고 있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5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자료수집에 많은 도움을 주신 장생포 고래박물관과 부산박물관에 감사드립니다.

■ 참고문헌

- 강인희. 1995. 「한국식생활사」 삼영사. 서울. pp 38-64
- 김원룡. 1980. 울주 반구대 암각화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 9: 5-22
- 김정배. 1998. 「몽골의 암각화」 열화당. 서울
- 남궁 일. 2001. 암각화에 나타나는 조형성에 관한 연구. 시각디자인학연구. 8: 127-140
- 이상목. 2004. 울산 대곡리 반구대 선사유적의 동물그림. 한국고고학보. 52: 35-68
- 이태진. 2006. 「울산반구대 문화유적보존 심포지움 자료집」 외 계층격설의 관점에서 본 울산 암각화. pp3-40
- 임세권. 1999. 「한국의 암각화」 대원사. 서울. pp 22
- 임장혁. 1991. 대곡리 암벽조각화의 민속학적 고찰. 한국민속학회지. 24:71-195
- 장명수. 1997. 한국암각화의 편년. 「한국의 암각화」 한길사. 서울. pp 195
- 정동찬. 1996. 「살아있는 신화바위그림」. 혜안. 서울. pp 17-18
- 정석조. 1982. 세계의 포경업과 고래의 자원관리(1). 한국장서가회. 4: 126-146
- 정석조. 1983. 세계의 포경업과 고래의 자원관리(2). 한국장서가회. 5: 127-14
- 한국역사민속학회. 1996. 「한국의 암각화」 한길사. 서울. pp 45
- Anati E. 1986. The rock art of Tanzania and the East African sequence. BCSP. 23: 15-68
- Anati E. 2000. The background of the appearance of rock art and its meaning. 「International Symposium on Ulsan Rock Art」 Seoul Arts Center and City of Ulsan. Seoul Arts Center. Seoul. pp 117-145
- Bokcheon Museum. 2005. 「Ancient Cooking」 APEC 2005 Korea Special Exhibition. Busan. pp 18
- Busan Museum 2002. 「History and Culture of Busan」 Busan. pp 44-46

- Chun JG. 2000. Totem-worship, folk style, and ancient viewpoint of world appearing in Ulsan rock art. 「International Symposium on Ulsan Rock Art」 Seoul Arts Center and City of Ulsan. Seoul Arts Center. Seoul. pp 43-61
- Hwang SI, Yoon SO. 2005. The change of physical environment during Holocene in Ulsan city and the Bangudae-rockgraving-picture. 「Jangsaengpo Whale Museum」 Ulsan Metropolitan. Ulsan. pp 108-132
- Jang SH. 2000. Analysis of images in Ulsan rock art. 「International Symposium on Ulsan Rock Art」 Seoul arts Center and City of Ulsan. Seoul Arts Center. Seoul. pp 33-42
- Jo CS. 2000. Means of communication and pictograph - The symbolic system of Ulsan rock art. 「International Symposium on Ulsan Rock Art」 Seoul Arts Center and City of Ulsan. Seoul Arts Center. Seoul. pp 63-73
- Kim GS. 2000. The fishing practice appearing in Ulsan rock art.
- 「International Symposium on Ulsan Rock Art」 Seoul Arts Center and City of Ulsan. Seoul Arts Center. Seoul. pp 21-32
- Kim ZG. 2004. Whales and their implication of Korean culture. 「Jangsaengpo Whale Museum」 Ulsan Metropolitan. Ulsan. pp 99-106
- Komatsu M, Misaki S. 2004. 「The History and Science of Whales」 The Japan Times. Tokyo. pp 3-76
- Moon MD. 2000. A retrospective report on the discovery of Ulsan rock art and on the summery of my research on it. 「International Symposium on Ulsan Rock Art」 Seoul Arts Center and City of Ulsan. Seoul Arts Center. Seoul. pp 9-19
- Ulsan Metropolitan Namgu. 2005. 「Jangsaengpo Whale Museum」 pp 19

(2006년 10월 25일 접수, 2006년 12월 15일 채택)